

신한국 건설을 위한 석유정책의 기본방향

김 동 원

<상공자원부 석유정책과장>

I. 머리말

「문민시대」가 시작된 지 두달이 지나면서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신한국 건설을 위한 노력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및 가스분야의 정책방향은 이를 재정립하고 보완하여 새로운 시대의 흐름에 맞추어 나가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분야에 있어서의 신한국 건설계획은 향후 5년동안의 경제개혁 및 경제운용에 관한 「신경제 5개년계획」에 집약되어 급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도록 준비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구체적인 계획은 「신경제 5개년계획」이 확정된 후에야 정리될 수 있을 것이나, 우선 그 기본방향만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정부의 지시, 통제로부터 국민의 참여와 창의에서 발굴하고,
- 둘째, 국민의 참여와 창의를 극대화 하기 위하여 제도개혁과 의식개혁을 추진하며,
- 셋째, 경제정책은 성장잠재력의 확충,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위상강화를 뒷받침할 시책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침에 따라 석유 및 가스분야에 있어서의 기존정책을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새로운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실행에 옮겨 나감으로서 신한국 건설의 바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II. 신경제 5개년 계획상의 석유 및 가스 정책 기본방향

1. 석유 및 가스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기반 조성

우리가 경제성장과 국민생활 향상을 추진하는 한 에너지·자원의 안정적이고도 경제적인 확보와 이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은 다른 모든것에 우선하여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1) 석유 및 가스의 안정확보

석유의 경우 최근의 국제원유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로도 당분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물량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원유 및 제품의 안정적 확보가 비교적 용이하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보다 싼 값으로 이를 확보하느냐 하는 경제성의 문제에 관심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물시장과 장기도입물량을 적절히 조

<표-1> 천연가스 수급전망

	1993	1994	1996	1998	2000	2006
수요	4,250	4,722	7,403	8,280	9,566	14,050
확보	4,250	4,036	5,356	6,300	6,300	6,300
부족	-	686	2,047	1,980	3,266	7,750

	1992	1993	1995	1997
· 원유처리능력(천B/D)	1,675	1,675	1,910	2,010
· 분해탈황시설(%)	34	94	229	409
· 시설고도화율(%)	2.0	5.6	12.0	20.4

화시켜 나감으로서 도입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한 한 값싸게 원유를 도입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중동의존도 감축을 위해서는 도입선 다변화 정책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천연가스는 최근 국내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소요물량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4년부터는 수요에 비해 확보물량의 부족이 예상되고 있어 우선 중기적으로는 인니, 알제리, 말련등으로부터 단기 도입계약 방식으로 부족물량을 충당해 나가되 1997년 이후 소요량은 장기도입계약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장기 도입선을 발굴하여 도입하고 국내기업의 해외가스전 개발 및 지분참여를 통해 안정공급과 경제적 도입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2) 공급기반의 확충

늘어나는 석유수요와 수요의 질적변화에 대응하여 석유정제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시설도 고도화해 나가는 것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원유처리능력을 현재의 1백 67만5천B/D에서 1997년까지는 2백1만B/D으로 확대하고, 시설고도화율도 20% 수준으로 늘리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989년 9월 서산-천안간 93km와 1992년 2월 인천-서울간 55km의 송유관 건설을 완료한데 이어, 1994년말까지 여천, 온산-서울간 900km를

추가로 건설 완료할 계획이다. 이러한 장거리 송유관이 완공되면 국내 유류 유통체계의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는 각 수송수단간의 수송분담, 지역별 저유소의 배치등이 주요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천연가스의 전국공급망도 꾸준히 건설을 추진하여 2000년까지는 전국 주요도시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2개의 LNG 인수기지를 신설하고배관망1,407km를 건설중에 있다. (표-2참조) 아울러 계획상 천연가스 공급지역에서 제외되어 있는 강원지역에 대한 공급방안 및 호남권 지역에 대한 조기공급방안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그밖에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LPG 수요에 대비하여 수도권 인근에 신규로 16만톤 규모의 LPG 수입기지도 조기에 건설할 계획이다.

(3) 비상시 석유공급능력의 확충

항상 불안정성이 내재되어 있는 국제 석유시장 여건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에 적정수준의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석유비축사업을 꾸준히 추진하여 1992년말 현재 4천만배럴 수준까지 비축량을 늘려 왔으나, 이는 국내수요의 28일분에 불과한 양임으로 정부는 1998년까지 이를 8천7백만배럴 대폭 확대키로 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그러나, 이러한 비축량이 계획대로 확보된다 하더라도 국내수요가 계속 증가하게 되므로 1998년기준 50일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표-2> 천연가스 전국공급사업

	사 업 내 용	투자비(억원)	사업기간
○ 평택기지증설	저장탱크(10만 ^m ³) 4기→7기	3,445	1990~1995
○ 인천기지신설	저장탱크(10만 ^m ³) 3기 건설	8,393	1990~1996
○ 주배관망건설	주배관 1,407km	13,479	
- 수도·중부권	-303km	-3,170	1990~1993
- 영·호남권	661km	6,995	1990~1996
- 남부권 등	-443km	-3,314	1990~1999

따라서 최소한 60일분 정도의 정부비축량을 보유할 수 있도록 추가비축계획을 수립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금년중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부문에서도 30일분 정도의 비축량은 항상 유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되 이에 따른 민간의 부담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이를 달성토록 할 방침이다.

(4) 국내의 석유·가스 개발의 적극 추진

그동안 30여 차례에 가까운 국내 대륙봉에서의 탐사시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경제성 있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국내에서의 석유발견은 우리의 오랜 숙원이 아닐수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탐사를 통해 석유부존이 유망한 지점에 대한 시추등 석유발견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특히 금년중에는 6-1광구에서 1개공을 시추할 예정인 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앞으로 국내대륙봉탐사에 외국업체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해외유전 및 가스전 개발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해외유전개발에 진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토록 용자지원규모를 확대하며, 지원범위도 중전에는 탐사사업비의 60%까지 지원하던 것을 70%까지로 확대하였고, 타당성 조사 사업에 대하여도 보조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금년중에는 베트남 11-2광구에 대한 물리탐사 및 시추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으며, 러시아 야쿠트 천연가스전 개발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도 금년중 착수할 예정이다.

2. 환경과 조화되는 석유정책의 추진

최근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저공해유의 사용이 강제되거나 자발적인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석유정책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환경측면을 고려한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휘발유의 경우 금년부터는 100% 무연휘발유만 공급되고 있으며, 경유는 유황함량이 1.0% 이던것이 0.4%로 낮추어 공급되고 있으며 다시 0.2% 수준으로 낮아진 경유도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B-C유의경우도 유황함량이 4.0%에서 1.6%로 낮아졌으며 또다시 1.0%로 낮아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유황함량을 낮추어 생산공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러한 저유황유, 생산공급을 위해 고유황유와 저유황유간의 가격차이를 확대하는등 유종간 가격구조도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공해방지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천연가스이다. 그러한 천연가스를 확대공급하기 위한 물량확보, 인수차지 및 배관망건설등을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으므로 앞으로는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공해요소의 배출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석유제품에 대한 규격 및 품질관리를 강화하여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품질저하를 적극적으로 예방하는 것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될 것이다.

3. 석유산업의 경쟁력 제고

(1) 유가자유화의 추진

현재 석유산업에 대하여는 가격, 생산, 유통, 수출입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타산업에 비해 강력한 정

부규제가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정부규제가 필요했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석유가 가장 중요한 기초에너지원이라는 점 외에 국내 석유생산이 없어 전량 수입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생산업체가 적어 독과점에 따른 폐해 방지를 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정부규제에 의해 국내유가를 안정시킬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과점시장하에서 가격의 담합 인상을 방지하고 전국 균일가격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등 그동안 경제발전 및 국민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정부통제는 필연적으로 시장경쟁에 의한 가격기능을 약화시켜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국내 석유산업의 체질을 약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가격의 소폭 인상억제후 대폭인상이라는 형태로 국민경제에 충격을 주는 등 부작용도 큰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그동안 부분적인 가격자유화를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도 점차적으로 추진하여 왔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석유산업의 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석유가격도 여건에 맞추어 자유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1993년중에 원유가 및 환율에 국내유가를 연동시키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정하여 1994년 이후부터 이를 시행해 나가고 유가연동제의 성과를 보아 문제점을 보완한 후 전유종의 가격을 실질적으로 자유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와 보조를 맞추어 석유산업에 대한 규제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2) 상표표시제의 정착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
정부가 그동안 유통단계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추진해 왔던 상표표시제는 대부분의 주유소에서 이를 철저히 지킴으로서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행 1년의 상표표시계약 체결기간은 시장정상화 및 과다경쟁 방지라는 측면에서 다소 짧은 기간이라고 판단되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방안이 검

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정부가 상표표시제를 실시하려 했던 당초취지가 유통부문의 계열화를 이룩하여 계약기간 중에는 정유사 간의 경쟁효과가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해지도록 한다는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정책 취지에 맞추어 지속적인 유통부문계열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시에는 정유사와 주유소간의 직거래를 허용하는 방안, 이와 관련한 대리점의 위상재정립 등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석유판매업 허가제도 개선

그동안의 정부의 행정규제완화 노력에 따라 금년 11월부터는 주유소의 허가시 거리제한 기준이 폐지되도록 되어 있음은 우리가 잘 아는바와 같다. 그러나, 최근 각 시도별로 주유소 허가가 급증하고 있어 자칫하면 주유소의 난립현상까지 초래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유소허가시 거리제한 폐지도 이러한 폐해를 극소화 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주유소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대도시지역에서는 거리제한 기준을 당초 방침대로 폐지하되 기타 지역의 경우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주유소가 밀집된 지역에서는 일본의 경우와 같이 주유소의 신증설을 특별관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과제라 할 것이다.

(4) 석유·가스판매업의 건전육성

생산부분 못지않게 유통판매분야도 건전한 방향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으로 정부는 주유소·대리점 등 석유판매업의 경영현대화 및 다각화를 적극 유도해 나가고 LPG 충전시설도 자동화·대형화 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에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공동주택 등에는 소형탱크를 옥외에 설치하여 LPG 집단공급 방식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3. 맺는말

이상으로 간단히 신경제 5개년계획 기간중 중점 추진해야 할 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보다 구체화되어 금년 6월말까지 확정되어 금년 하반기부터는 실행에 옮겨질 것이

다.

석유·가스를 포함한 에너지분야는 도로, 항만등과 같이 경제성장과 국민생활향상을 지원하는 사회간접자본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그 자체로서 하나의 상품인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상품이라는 측면에서 또 산업이라는 측면에서는 신경계 수립에 적극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사

회간접 자본적인 성격은 정책추진의 지속성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가스분야가 가지는 특성을 최대한 감안, 종전부터 추진해오던 정책의 지속적 추진과 함께 석유·가스산업에 있어서의 민간의 창의와 참여를 최대한으로 이끌어 내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하면서 글을 마친다. ♣

경총·노총 임금인상합의

한국경총과 한국노총은 올해 임금인상율을 4.7%~8.9%의 범위내에서 타결되도록 공동 합의하였다.

이번 합의는 중앙단위의 노사단체가 처음으로 자율적인 임금인상안을 만들어 냈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회복과 정부의 고통분담 호소에 노사가 적극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우리나라 노사관계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음은 두 단체간의 주요합의사항이다.

1993년 중앙노사 임금조정 합의서

1993년도 전산업 임금교섭에 즈음하여 노·사대표는 최근 국민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새로운 문민정부 출범에 발맞추어 공정한 고통분담과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 2월 9일부터 4월 1일까지 9차에 걸친 노·사대표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이 권장할 것을 합의한다.

-다 음-

첫째, 93년도 임금인상률은 (4.7%~8.9%)로 한다.

둘째, 정부와 근로자와 사용자등 경제주체 삼자가 모두 함께 고통을 분담토록 아래사항 이행을 제시한다.

가. 대정부

- 1) 물가안정을 약속한대로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
- 2) 금융실명제를 조기 실시하여야 한다.
- 3) 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예) -성과급 및 실적급에 대한 면세조치
-근로소득세 면세점 인상 및 세율인하
-불로소득 및 음성수입에 대한 과세 강화

- 4) 음성적 정치자금 수수나 각종 준조세를 철폐토록 하여야 한다.
- 5) 고용보험제를 조기 실시하여야 한다.

나. 대사용자

- 1) 기업경영실적에 대하여 노사가 정보를 공유토록 한다.
- 2) 임금인상분을 제품가격을 전가하지 않는다.
- 3) 해고를 자제하고 고용안정에 최선을 다한다.

다. 대근로자

- 1) 경제환경의 어려움을 인식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경제활성화에 적극 참여한다.
- 2) 생산성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다만, 최근 생산성 향상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산재 소홀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산재예방책을 함께 강구하여야 한다.

라. 이상의 합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월 기본급 30만원(일당 12,000) 전후의 저임금 근로자에게는 본 합의와 관계없이 기업의 지불능력 범위내에서 적절히 인상하여 기업간 직종간 임금격차를 완화해 나갈 것을 권고한다.

마.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의는 동시에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1993년 4월 1일